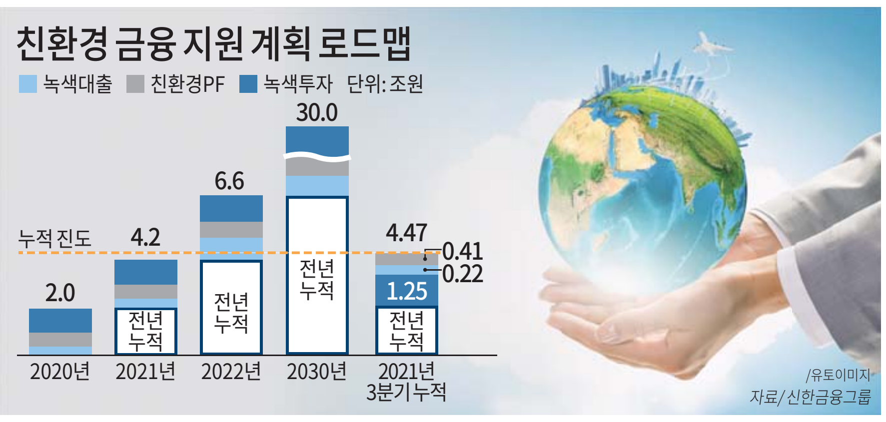
환경 리스크로 대출 심사… 금융권, 기업 ESG평가 구체화

업계, 자체 평가모델 구축 행보
신한, 환경 리스크로 등급 분류
KB, 업종별 위험 노출도 파악

객관성 담보할 수 있을 지 의문
공통평가지표 마련 우선돼야

금융그룹들이 ESG(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평가체계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평가기관이 기업의 ESG를 평가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체 평가모델을 구축해 기업의 신용한도와 금리를 정확하게 측정하겠다는 의도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그룹은 ESG 평가체계를 구체화하고 있다. ESG평가체계는 기업의 활동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신한금융은 이 평가지표를 재무제표와 함께 사용해 기업의 투자 대출 진행시 반영한다.



/유토이미지
자료/신한금융그룹

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는 환경이다.

신한금융은 기업 환경 리스크 리뷰 절차를 거친다. 투자 대상 프로젝트가 그룹에서 지향하는지 환경 리스크가 없는지 확인하고, 환경사회 위험수준을 A·B·C등급으로 분류한다.

A등급은 환경사회 위험이 심각하고 광범위한 지역에 파급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 B등급은 A등급보다 덜 심각하고 사업현장에 국한돼 회복조치가 용이한 사업을 말한다. C등급은 환경사회 위험이 미미한 사업이다. 신한금융은 A, B 등급으로 분류된 프로젝트에 대해 점검 의견을 작성하고, 환경사회 위험요인에 대한 경감대책이나 관리조치를 금융계약에 반영한다.

불법적인 활동에 대해서도 금융지원을 배제한다. 국가의 법이나 규제에 위반하는 제품의 생산이나 서비스제공과 관련된 거래, 혹은 불법적인 도박이나 포르노 산업에 관련된 거래는 제한한다. 석탄발전소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에는 초임계 이상의 기술수준이나 탄소배출량이 800g/kWh 이하인 경우에만 조건부 금융을 지원한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각 그룹사가 ESG 사업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ESG 관리체계를 통해 적용하고 있다"며 "매 분기마다 경영실적을 통해 ESG성과를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실적을 보면 지난해 3분기 친환경금융 신규금액은 총 1조8815억원으로 누적 금액은 4조4700억원이다. 친환경금융 로드맵을 통해 지난해 4조2000억원까지 달성하려던 수준을 뛰어넘은 셈이다.

KB금융도 기후변화 이슈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대출, 회사채, 주식 등 주요 자산군의 업종별 위험 노출도를 파악하고 있다. 대표적인 화석연료 산업인 발전·에너지 업종은 '집중관리 섹터'로 철강, 석유화학 등 고탄소 배출업종은 탄소배출 및 산업계 노력정도에 따라 '유의섹터' 또는 '관심섹터'로 지정한다.

특이한 점은 KB금융의 경우 10년간 강수량, 산불 증가 등 기후변화에 따른 손실도 측정한다. 기후변화로 발생한 물리적 리스크는 사업장을 중단시켜 영업기회를 상실하거나 수익률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KB금융은 이처럼 평가된 지표를 기업의 투자 대출심사에 반영한다. 금융실적을 보면 친환경 상품·투자·대출의 합계는 22조9500억원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이 빨라진 ESG 행보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충분히 구체화되고 있지만, 금융권마다 제각각 지표를 사용하고 있어 공통의 평가지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기업의 ESG 활동을 평가해 대출을 규제하겠다고 하는데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라며 "모두가 납득할 만한 공통의 평가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ESG 행보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경상수지 72억달러, 19개월 연속 흑자… 반도체 등 효자

〈지난해 11월〉

상품수지 흑자폭 축소로
전년비 20.2억 달러 감소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 2016년(826억9000만 달러) 이후 5년 만에 최대 흑자를 넘어서며 19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이 효자 노릇을 하면서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해 흑자 폭은 줄었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 경상수지 전망치인 920억달러 달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경상수지는 71억6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5월 이후 이어진 흑자는 19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의 영향이 컸다.

11월 수출은 604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2.0% 증가했다. 글로벌 경기회복이 지속되며 13개월 연속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석유제품이 전년 동월보다 127.1% 크게 뛰었다.

그 밖에도 반도체(38.8%↑), 화공품(35.8%↑), 철강제품(33.7%↑) 등을 중심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 중국 미국 등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 증가가 지속됐다.

수입 역시 573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3.6% 성장했다. 원자재 가격 급등 영향으로 원자재 수입이 급증했다. 또 자본재와 소비재 수입도 확대 흐름을 이어가면서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수입의 증가폭이 수출을 앞지르면서 수출입 차이인 상품수지 흑자는 11월 59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99억5000만 달러와 비교하면 40억 달러 축소된 것이다.

이성호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부장은 "2021년 11월 경상수지 흑자는 71억6000만 달러 흑자로 전년 동월의 91억8000만 달러보다 20억2000만 달러 줄었다"라며 "이는 서비스수지와 본원소득수지 개선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흑자 폭이 축소된 데 기인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상수지를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상품수지는 세계 교역이 개선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수입의 증가율이 지난 6월 이후 6개월 연속 수출을 상회하면서 흑자 폭이 크게 줄었다"고 했다.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 동월 9억8000만 달러에서 1억4000만 달러로 축소됐다. 운송수지 개선 등의 영향으로 적자폭이 한 달 만에 8억4000만 달러 줄어든 것이다.

특히 운송수지가 44억9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보다 12억 6000만달러 확대됐다. 이는 역대 3위 규모에 달하는 수준이다. 수출화물운임 상승 지속에 따라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컨테이너선운임지수(SCFI)는 4562로 전년 동월 대비 143.0% 급증했다. 항공화물운임지수(TAC, 상해-미국)도 13.8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88.8% 확대됐다.

본원소득수지는 14억9000만 달러 흑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 10억1000만 달러 증가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 증가로 인한 배당수입이 23억8000만 달러로 1년 전(14억3000만 달러)보다 늘어나면서다.

연초 이후 누적 기준 경상수지 흑자는 842억3000만 달러다. 당초 한은이 제시한 올해 연간 흑자폭은 920억 달러다. 경상수지가 남은 한 달간 월평균 78억 달러 흑자를 내면 가능하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300억 창업펀드로 지역 인재에 기회"

고승범 'IBK창공 대전 개소식'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창업도전에 대출·투자·보증 지원 등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창업공간, 컨설팅 등 다양한 비금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사진)은 11일 대전 유성구 엑스포타워에서 열린 'IBK창공 대전' 개소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IBK창공은 창업기업에게 사무공간과 멘토링, 컨설팅 등 맞춤형 보육서비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7년 마포에서 시작한 IBK창공은 구로, 부산, 서울대 캠프에 이어 대전까지 확대됐다. IBK창공 대전은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환경·지속가능 등 분야의 혁신 창업기업 25개사를 대상으로 사무공간과 함께, 투·융자 지원, 멘토링, 판로개척 및 마케팅 등 창공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이날 기술한 기반한 창업으로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창업도전에 정책금융을 통한 대출·투자·보증 지원과 함께 창 업공간, 컨설팅 등 다양한 비금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특히 지식재산(IP)금융, 동산금융, 모험자본육성, 재도전프로그램에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와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300억원 규모의 지역 혁신창업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정책자금 150억원과 민간출자 150억원으로 구성된 자금은 설립7년내 청년창업 혁신기업 60% 이상, 설립 7년내 비수도권 소재 창업 혁신기업에 30% 이상 투자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유통업계, 설 앞두고 중소협력사 대금 조기지급

홈플러스 2600여곳에 1125억
현대百 7300여곳에 5400억

유통업계가 설을 앞두고 조기 대금정산에 들어갔다.

홈플러스는 11일 설을 맞아 중소협력사를 대상으로 상품대금 등 각종 정산대금을 앞당겨 지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기 지급 대상 협력회사는 약 2600여개 업체로 대기업을 제외한 협력사들로 선정했다. 정상지급일 보다 8일 앞당겨 지급되는 총 정산대금은 1125억원 규모로 26일 일괄 지급한다.

이제훈 홈플러스 사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며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고객을 위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주신 협력사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명절 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협력회사와 동반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백화점그룹도 그룹 계열사와 거래하는 7300여 중소 협력사의 결제대금 5400억원을 당초 지급일보다 최대 5일 앞당겨 오는 26일에 지급한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직원 상여금 등 각종 비용 지출 증가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 협력사들을 위해 결제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생 제도를 통해 협력사들과 동반성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백화점은 2014년부터 시행 중인 중소 협력사 대상 무이자 대출을 올해도 신청 받는다. 올해 지급되는 금액은 60억원 규모로 무이자 대출을 희망하는 협력사는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현대백화점 동반상승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대출금액은 3월 10일에 일괄 지급된다. /김서현 기자 seoh@